

# KARA NEWS LETTER

issue no. 002  
OCTOBER 2013

## KARA NEWSLETTER

### 2013 News

KARA, F1 Welcome Social 개최

### KARA Issue & Photogallery

생명을 구한 신소재 헬멧  
FIA의 새 포뮬러 F4

### KARA Interview

F1 최연소 여성 심사위원 실비아 벨론



# KARA News

## KARA, F1 Welcome Social 개최

- F1 심사위원, 팀 대표급 등 해외 유명 인사 대거 참여
- 다채로운 공연 이벤트로 F1 핵심인사 눈길 사로잡아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13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기념, 해외 F1 관계자들을 초청한 디너 파티인 'KARA F1 Welcome Social'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0월4일 대회 개막일 밤, 목포 현대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파티에는 F1 관련 해외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개리 코넬리 위원장을 비롯한 3인의 해외 심사위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행사의 무게를 더했다. F1팀을 대표해서는 자우버팀 대표 모니샤 칼텐본, 로터스팀 대표 에릭 볼리어 등이 참석했다.

KARA 변동식 협회장은 이날 "포뮬러원은 속도라는 주제로 인류를 하나로 잇는 스포츠"라며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을 다시 찾는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개리 코넬리 심사위원장은 해외 관계자를 대표한 답사에서 "대회 기간 중 가장 인상적인 자리를 만들어준 KARA 관계자에게 감사한다"며 "한국 그랑프리도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파티의 주제는 '화합'이었다. Welcome Social 이라는 공식 행사명칭에서 나타나듯 기존 국제행사의 권위적 이미지를 배제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참석자 모두가 그랑프리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만들어졌다. 특히 칵테일쇼, 비보이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 이벤트도 열려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KARA는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한국 그랑프리 기간 중 해외 인사 초청 파티를 개최하며 한국과 해외 모터스포츠 인사들이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 KARA News

## 영드라이버들 전남 F1 무대 초청, 꿈을 키웠다

KARA, 2013 F1 기간 중  
유소년 카트 유망주 현장 견학 기회 제공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2013 F1 한국 그랑프리 기간 중 전국의 유소년 카트 드라이버 15명을 경기 현장에 초청했다. 이번 초청은 20세 이하의 공인 카트 경기 출전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 모터스포츠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세계 최고 레이싱의 현장을 체험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소년 드라이버들은 테크니컬 구간으로 평가되는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상설 피트 옆 관람석을 제공받아 포뮬러 경주차의 코너링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한편 변동식 협회장은 10월6일 결승 레이스 일에 참석 유소년들과 직접 만나 기념촬영을 하는 등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 조항우, KARA 공인 100경기 출장 대기록 수립

2000년부터 14년 개근... 이재우 이어 역대 두 번째 달성

국내 간판 드라이버 조항우(아트라스BX)가 역사적인 통산 공인 100경기 출장 기록을 수립했다. 조항우는 지난 8월31일 강원도 인제 스피드움에서 열린 2013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제네시스 쿠페 챔피언십 제5라운드에서 역사적인 100경기 출장기록을 달성했다.

조항우는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기록에 근거, 지난 2000년 한국모터챔피언십 시리즈 포뮬러1800 종목에 데뷔한 이후 올해까지 14시즌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레이스에 나선 결과 이같은 대기록의 주인공이 되었다. 100경기 출전은 국내 모터스포츠 역사상 두 번째 기록이다. 현재 118경기에 참가 중인 이재우(쉐보레 레이싱) 감독이 지난 2011년 이 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시리즈 별로 연간 7경기 정도를 치르는 현재의 경기수를 기준으로 보면 100경기 출장은 최소 15년 이상 현역으로 꾸준히 활동해야 도달할 수 있는 대기록이다.

조항우는 개인 통산 15승, 예선 폴포지션 17회 등을 기록하며 단지 많은 경기에 참가한 것만이 아니라 알토란 같은 성적표도 남겼다. 특히 지난



2007~2009 시즌에는 CJ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참가하며 GT(2007), 슈퍼6000(2008), 제네시스 쿠페전(2009) 등으로 종목을 바꾸어가며 3년 연속 시리즈 종합 우승을 거머쥐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KARA는 조항우 드라이버의 대기록 수립을 축하하는 기념패를 경기 후 제작할 예정이다. 또 앞서 기록을 달성한 이재우 및 향후 달성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향후 '100클럽'을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KARA News

## KARA, 설립 17년 만에 새 CI 선보여

- 모터스포츠의 역동성 표현한 디자인으로 간판 교체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변동식 협회장)의 얼굴이 바뀌었다. KARA는 지난 8월 단체의 상징인 CI를 바꾸는 수술부터 단행했다. 새 CI는 'KARA'의 영문 이니셜 위에 경주차를 형상화한 윤곽선을 얹어 모터스포츠 주관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 눈에 모터스포츠의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전체적인 색상은 기존 KARA와 국제자동차연맹의 상징색인 짙은 청색 계열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바람을 가르는 듯한 날렵한 모양의 오렌지색 선을 더해 레이스의 빠른 속도감과 에너지를 표현했다. 유니폼 등 의류와 차량용 마크 등에 활용되는 다양한 변형 로고도 함께 발표되었다. 변형 로고는 승리와 완주를 의미하는 체커 무늬 깃발 문양 등을 덧입혀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했다. 협회는 홈페이지와 공식 문서 등에 새로운 CI를 이미 도입한 데 이어 앞으로 전면적인 이미지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8월8일은 모터스포츠의 날!

차바퀴 4개 떠올리게 하는 날...  
앞으로 매년 다채로운 행사 예고



"네 바퀴 닳은 '8.8'에 모터스포츠를 떠올려 주세요"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변동식 협회장)가 매년 8월8일을 '모터스포츠의 날'로 지정했다. 연이은 숫자 8이 자동차의 네 바퀴를 연상케 하는 날이다. KARA 창립 기념일 등 다른 후보 일도 있었으나 모터스포츠 팬들이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8월8일이 낙점 되었다. 협회는 "모터스포츠의 날을 지정해 대중들이 자동차경주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할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 매년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터스포츠는 첨단 스포츠 산업의 총아로 불리는 종목임에도 그 동안 특정한 기념일이 없었다. 모터스포츠의 날 지정 첫 해를 기념, 지난 8월 꿈나무 드라이버들을 위한 자선 경매 행사를 진행했다. 인기 스타 드라이버인 류시원 EXR탐106 감독, 김진표 드라이버(쉐보레 레이싱) 등 드라이버들의 소장품과 장토드 FIA회장, 변동식 협회장 등이 공동 서명한 헬멧 등이 경매 물품으로 나와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경매 기금은 10대 카트 드라이버 장학금에 쓰인다.

# KARA News

## FIA 영드라이버 아카데미에 대표 서주원 파견

10월20~23일 호주서...  
국제자동차연맹 공식  
아시아 태평양 평가전 참가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변동식 협회장)가 글로벌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한국인 청년 드라이버를 공개 선발했다.

KARA는 국제자동차연맹 산하 FIA 인스티튜트(FIA Institute)가 마련한 '영드라이버 엑셀런스 아카데미'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에 한국 대표로 서주원을 선발했다.

서주원은 10월20~23일 호주 시드니 모터스포츠파크에서 해외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드라이버 소양 교육을 받고 평가 경기까지 치르게 된다. 이 교육에서 상위권에 오르면 2014년 예정된 FIA 글로벌 영드라이버 아카데미 참가권이 주어지며 국제 무대에서 유망주로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된다.

한국의 KARA 뿐 아니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모터스포츠 주관단체에서 국가 당 1명을 선발, 파견하는 행사여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선발 대상은 만 17~24세 사이의 젊은 유망주였다. FIA 기준에 따라 서킷 경기 출전 경험 드라이버 가운데, 상위 레벨의 국제대회 출전 의지가 있는 도전자를 고른 결과 서주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동안 지역별 단위로 진행되던 FIA의 드라이버 교육 프로그램이 국제 규모로 확대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외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KARA는 올해 선발된 서주원의 성장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 기대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국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 KARA News





생명을 구한 신소재 헬멧

올 F1 독일 그랑프리에서 마루시아 드라이버 마크 칠틀이 날아오는 파편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FIA가 이번 시즌부터 의무사용으로 규정한 신소재 헬멧 바이저 스트립 덕분이다. 21세기에 등장한 신소재인 자이론(ZYLON)을 사용한 이 스트립은 바이저 상단 보호를 위해 스티커처럼 붙이도록 되어 있다. 칠틀은 이 스트립 부분에 돌맹이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했다. 이 스트립은 지난 2009년 F1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바이저 부근의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개발되었다. 당시 펠리페 마사가 앞차에서 날아온 스프링 부품에 맞아 뇌를 크게 다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바 있다. 이후 FIA는 헬멧의 안전 기준을 크게 강화한바 있다. 자이론은 항공기 소재인 케블라보다 두 배 강한 슈퍼 섬유 소재다.



FIA의 새 포뮬러 F4

FIA가 새로운 포뮬러4 챔피언 경주차를 최근 공개했다. 6월 영국 굿우드에서 열린 FIA 스포츠 컨퍼런스 워크에서 전 F1 드라이버인 게르하르트 베르거가 새 차를 소개했다. 새 차는 카트에서 포뮬러로 진입하는 영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한다. 포뮬러 리그가 없는 한국 역시 FIA가 주도하는 새 클래스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 FIA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WMSC) 또한 각 국 모터스포츠 주관단체 (ASN)들이 경제적인 가격으로 새 포뮬러 대회 개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갖가지 지원 방안을 논의중이다. 최근에는 F4에 참가할 새시와 엔진업체에 대한 등록도 개시되었다. 생산업체들은 등록 이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F4의 목적은 분명하다. 관리가 편하고 어디에서나 일관된 정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기술적으로 공정하여 드라이버의 실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 스포츠로서의 타당성, 챔피언십의 안정성 등이다.



# Photo Gallery



- ① KSF 서한, 퍼플모터스포츠팀
- ② SR 6R 피트워크 - EXR team 106 피트를 찾은 일본 팬들
- ③ KSF 4R 피트스탑
- ④ KSF 5R 키즈공학교실
- ⑤ SR 6R GT - 클래스 원투피니쉬를 달성한 이재우, 김진표 (세보레 레이싱)



^ KSF 10주년 케이크 커팅 - 브야걸, 이재권, 강병휘, 권봄이  
^ SR 6R 피트워크 - 레이싱 모델 1

^ Sr 6R 슈퍼6000 클래스 삼페인 세레머니



# The youngest of Women Steward of F1 SILVIA BELLOT

## F1 최연소 여성 심사위원 실비아 벨롯



^ 10월 4일 진행된 'KARA F1 Welcome Social'에 참석한 실비아 벨롯  
^ 영암 국제서킷의 응급의료 헬기 계류장에서 변동식 협회장과 실비아 벨롯

모터스포츠 이벤트 현장에서 누구보다 큰 권력을 지닌 존재가 바로 심사위원이다. 이처럼 막강한 자리, 그것도 세계 최고 레이싱인 포뮬러원에서 20대의 젊은 여성 심사위원이 활동하고 있어 화제다.

놀라운 이력의 주인공은 스페인 출신의 F1 스텐드인 실비아 벨롯. 벨롯은 FIA 공인 스텐드 가운데 최연소이자 유일한 여성이다.

벨롯의 활약은 최근 FIA가 추진중인 여성 모터스포츠인구 확대 캠페인 'Woman In Motorsports' 와 맞물려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그런 그녀가 지난 10월4~6일 전남 영암에서 열린 2013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흔히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진 원로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심사위원 자리에 젊은 여성이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오피셜 활동이다.

오피셜은 남성 비중이 높은 분야지만 벨롯에게는 예외였다. 벨롯은 남성들도 도전하기 힘든 자동차경주 무대의 주역이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아버지가 40년 이상 자동차경주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왔어요. 스페인 자동차경주협회 캘리위원장도 역임하기도 하셨지요. 자연스럽게 저는 어려서부터 모터스포츠 현장을 놀이터처럼 여기며 자라왔지요."

벨롯이 공식적으로 모터스포츠의 일원이 된 것은 16살부터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오피셜이 되면서부터다. 불과 2년 뒤인 18세 때에는 심사위원 자격 시험을 통과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포뮬러 경기에서 심사 경력을 쌓은 것은 GP2부터였어요. 오프로드 경기에도 참가했는데 월드랠리챔피언십(WRC) 그리고 독일 DTM에도 참가했어요."

그녀는 올해 월드투어링챔피언십(WTCC)에서 심사위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WTCC에서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한 일, 지난해 마지막 F1인 브라질 그랑프리 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비정상적인 만큼 빠르게 그녀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FIA 컨퍼런스에서다. 이 자리에서 벨롯은 '최우수 오피셜상' 을 받았다. 그녀의 강점은 경험 많은 선배 심사위원들과 달리 세부 규정 문구까

지 철칙 위주는 총명한 기억력에 있다. 실제로 생물학, 디자인 등 2개의 대학 학위를 가졌을 만큼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다.

모국어인 스페인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4개 국어를 현직인 수준으로 구사하는 언어능력도 지녔다.

"F1 등 세계를 무대로 펼치는 모터스포츠의 일원이 되려면 외국어 공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심사는 고급 정보를 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다섯번째 F1 심사 무대인 한국에 대해서도 호의를 표했다. "한국은 처음이지만 오피셜들의 뜨거운 열정에 매우 놀랐어요. 내년 그랑프리 때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Prestigious Racing Team

**CJ Racing TEAM**

3년 연속 챔피언 배출한 명문팀 **CJ 레이싱팀**



탄탄한 팀워크로 2년 연속 슈퍼레이스 슈퍼6000 종목 챔피언에 오른 CJ 레이싱팀은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레이싱팀이다. 2008년에 출범한 이 팀은 올해 슈퍼6000과 GT 클래스 챔피언을 목표로 매 경주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J 레이싱팀은 2005년부터 팀 창단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다 3년이 지난 2008년 2월에 공식 출범했다. 팀은 지난 2005년 우승을 목표로 실력 있는 드라이버 영입에 나서 간판 스타였던 김의수 감독을 먼저 영입해 조직의 골격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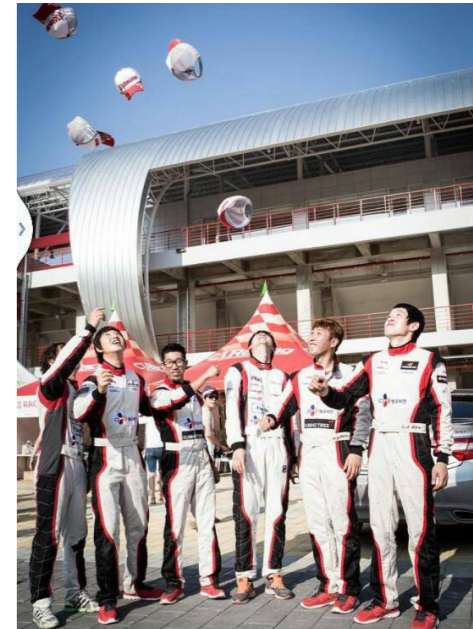
그러나 경기 주최자가 바뀌는 정치적 혼란이 생기며 2006 시즌이 시작되고도 공식적인 창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2007년 8월부터 CJ와 공동으로 대회 운영에 참여한 김의수는 GT 대신 스톡카를 국내 레이스에 도입하면서 변화를 꾀했다. 스톡카에 대한 준비를 마쳐갈 즈음 김의수는 다시 레이싱팀 준비에 뛰어들었다. 국내에 복귀한 이유가 프로모터가 아닌 레이싱팀 창단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다. 그 결과 2008년 2월에 CJ 레이싱팀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2009 시리즈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슈퍼6000에 출전하면서 CJ 레이싱팀의 본격 행보가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CJ 레이싱팀 드라이버는 김의수와 김범훈. 슈퍼6000 공식 데뷔 첫 해에 CJ 레이싱팀은 4전 연속 1위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고, 이듬해에는 시리즈 챔피언까지 차지하는 영광도 맛보았다. 2010 시즌에는 9점 차이로 밤바 타쿠에게 챔피언 자리를 내주었으나, 2011~2012년에 다시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며 명실공히 슈퍼6000 최강자로 떠올랐다.

올해 CJ 레이싱팀의 핵심 멤버는 김의수, 황진우, 최해민, 이화선 등 4명. 김의수와 황진우는 슈퍼6000 3연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GT 클래스에 출전하는 최해민 역시 선전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팀에 합류한 이화선은 올해도 넥센N9000에 출전해 종합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CJ 레이싱팀에는 국내 정상 실력을 갖춘 미케닉들이 포진해 있다. 이승철 치프 미케닉을 필두로 스톡카 담당 박효섭과 장태욱, GT 담당 류인재, N9000 담당 안도영 등 5명의 전담 미케닉이 탄탄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

올 시즌 CJ 레이싱팀은 경쟁팀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팬 서비스로도 눈길을 끈다. 국내팀 가운데 독보적인 규모의 팀 서포터즈가 생긴 것이 그 증거다.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레이싱팀, 스타를 만드는 레이싱팀으로서 CJ 레이싱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올 시즌 CJ 레이싱팀은 경쟁팀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팬 서비스로도 눈길을 끈다. 국내팀 가운데 독보적인 규모의 팀 서포터즈가 생긴 것이 그 증거다.





지난 3월 회원총회를 통하여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로 전달하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모터스포츠인들이 모인 동호회 활동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여라! 협회가 쏜다!’

모터스포츠 동호회 최강팀은 어디?



- 제목** '모여라! 협회가 쏜다!'
- 기간** 2013년 8월 8일(목) 부터 11월 3일(일)까지[88일간]
- 신청 방법** ①동호회 신청서 제출 ②추후 활동 시 동호회 활동 보고서 제출  
(KARA웹사이트 > Members > 다운로드 > 동호회 등록 신청서)
- 동호회 구성 자격**  
- 13' KARA라이선스(드라이버, 오피셜)소지자 또는 정회원 등록자 5인 이상 포함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동호회 지원 규정 참고)
- 선정 방법** 활동이 우수한 동호회 선정
- 지원 금액** 최우수동호회 100만원(1팀), 우수동호회 50만원(4팀), 참가동호회 감사기념품
- 쓰는날** 모터스포츠인의 날 밤 행사
- 제출처** euny@kara.or.kr | 담당자 정은희

※ 여행, 골프, 낚시, 볼링과 같은 취미 동호회부터 소규모 연구모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KARA Notice



### 인제 스피디움 FIA 그레이드2 호몰로게이션 취득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변동식 협회장)가 올해 등장한 신규 자동차경주장 인제 스피디움의 그레이드2(GRADE 2) 공인을 확정했습니다. 그레이드2는 F1 그랑프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포뮬러와 스포츠카, 프로토타입, GT카 경기 등을 열 수 있는 등급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정보입니다.

- 명칭 : Inje International Circuit
- 길이 : 3,908km
- 폴포지션 위치 : 왼쪽 그리드
- 주행방향 : 시계방향
- 코너 : 오른 방향 11개, 왼 방향 9개 등 20개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632번지
- 홈페이지 : www.speedium.co.kr

### KARA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KARA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다뤄지길 원하는 소식이나 정보에 대한 의견에서부터 자유로운 비평과 건의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편집이 이루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주시는 방법 : 이메일 kara@kara.or.kr



KARA NEWSLETTER 통권 02호  
발행인 변동식 발행처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20층  
연락처 02 424 2951 팩스 02 424 2953 홈페이지 www.kar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ramotorsports